



2013년 3월 27일

투자전략 Daily

투자전략 | 노근환 ☎ 3276-6226
시 황 | 박소연 ☎ 3276-6176
글로벌전략 | 박중제 ☎ 3276-6560
기술적분석 | 김철중 ☎ 3276-6247
계량/파생 | 안 혁 ☎ 3276-6272
경제분석 | 전민규 ☎ 3276-6229
이머징마켓 | 윤향진 ☎ 3276-6280
채권분석 | 이정범 ☎ 3276-6191
크 레 디 트 | 김기명 ☎ 3276-6206



• 투자전략

쎈텍과 중국의 구조조정 : 우리의 특실

• 이머징마켓 동향

상해종합 대출규제 우려로 1%대 약세

•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하이닉스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유한양행 외 5개 종목

• 산업/기업분석

은행, 이녹스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캘린더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03/19(화)	03/20(수)	03/21(목)	03/22(금)	03/25(월)	03/26(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978.56	1,959.41	1,950.82	1,948.71	1,977.67	1,983.70
	등락폭	10.38	-19.15	-8.59	-2.11	28.96	6.03
	등락종목	상승(상한)	472(3)	252(8)	298(2)	544(7)	384(1)
		하락(하한)	322(2)	565(1)	494(7)	266(3)	411(1)
	ADR	102.76	97.97	91.83	95.42	98.23	99.89
	이격도	10 일	99.11	98.45	98.29	98.47	100.06
		20 일	98.74	97.85	97.60	97.65	99.21
	투자심리	50	40	40	30	40	50
	거래량 (백만 주)	322	327	258	252	272	288
	거래대금 (십억 원)	3,646	3,728	3,489	3,303	3,408	3,423
코스닥	코스닥지수	550.01	546.26	544.56	551.25	549.56	549.90
	등락폭	8.92	-3.75	-1.70	6.69	-1.69	0.34
	등락종목	상승(상한)	711(9)	297(10)	374(5)	583(6)	536(8)
		하락(하한)	226(4)	640(9)	546(11)	341(11)	377(5)
	ADR	107.67	102.15	97.90	102.11	102.46	102.64
	이격도	10 일	100.69	99.97	99.60	100.67	100.20
		20 일	102.14	101.22	100.73	101.71	101.21
	투자심리	70	60	60	60	60	60
	거래량 (백만 주)	488	477	457	403	378	378
	거래대금 (십억 원)	1,936	2,160	1,952	1,897	1,800	1,867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 타
유가증권	매수	1,567.7	1,424.4	963.1	148.8	116.2	254.1	82.6	25.5	306.5	54.2
	매도	1,653.5	1,459.1	859.4	192.0	136.2	305.3	38.1	21.7	141.0	37.4
	순매수	-85.8	-34.7	103.7	-43.3	-20.0	-51.2	44.4	3.8	165.5	16.8
	03 월 누계	1,372.7	-2,237.0	844.1	62.9	-7.1	-593.7	60.9	42.1	641.7	20.3
	13 년 누계	684.1	-2,557.6	2,182.6	996.5	375.6	-1,916.5	-117.7	83.2	2,112.2	-309.1
코스닥	매수	1,689.8	123.2	121.6	32.5	11.1	34.7	7.9	5.9	24.3	13.4
	매도	1,713.7	83.4	130.6	20.0	15.6	43.6	12.4	2.4	27.5	20.4
	순매수	-23.9	39.9	-9.0	12.5	-4.4	-8.9	-4.5	3.5	-3.2	-7.0
	03 월 누계	-316.1	336.1	57.7	4.9	6.5	-25.1	-42.1	11.2	56.0	-77.8
	13 년 누계	-954.6	637.3	548.8	79.0	34.9	123.1	-27.7	-2.2	296.3	-231.5

썬텍과 중국의 구조조정 : 우리의 득실

3월 월간 밴드	1,930-2,050pt
2013년 연간 밴드	1,780-2,400pt
12MF PER	9.5배
12MF PBR	1.06배
Yield Gap	7.6%P

- ▶ 썬텍의 파산과 중국의 그림자 금융 : 구조조정의 의지
- ▶ 손실분담원칙 : 과도한 유동성 공급을 자제하겠다는 원칙, 올해 경기 모멘텀 약할 듯
- ▶ 중기적으로 구조조정 가속화 및 과잉 공급 해소, IT와 자동차 일부 부품사 수혜

중국 정부의 썬텍 파산 좌시
: 썬텍은 중국 기업의
최초 디폴트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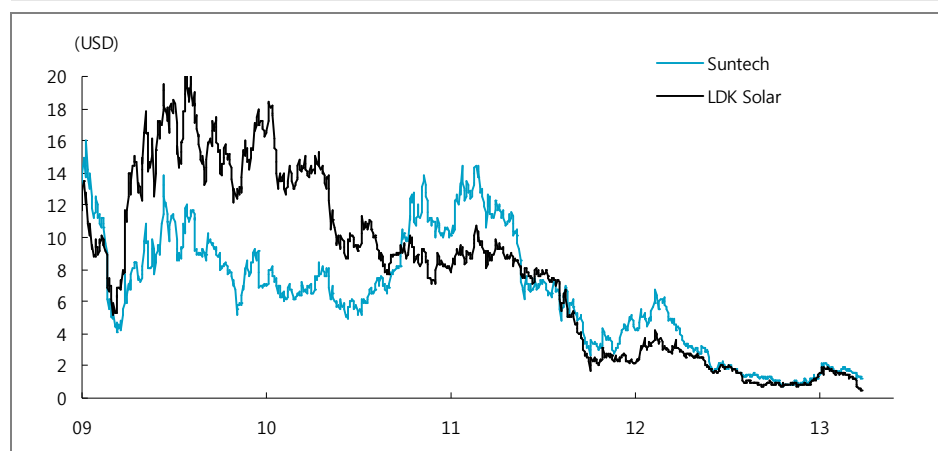
■ 썬텍의 디폴트, 지방정부의 관망

얼마 전 세계 최대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인 중국 썬텍(尚德电力)이 3월 15일 만기도래한 5억 4,100만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 상환에 실패했다. 태양광 업계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그러나 필자의 관전 포인트는 약간 다르다. 썬텍은 장쑤성 우시(无锡)에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투자에 힘입어 성장한 대표적 회사다. 그러나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사상 처음으로 기업의 디폴트 선언을 관망하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무차별 구제금융과 손실보전은 더 이상 없을 것이며 손실은 분담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것이다. 늘상 구조조정에 느긋한 입장이었으나 최근 태도를 바꾼 것이다.

당사 화학/태양광 담당 박기용 애널리스트는 ‘썬텍의 파산 신청은 태양광 산업에 있어 상징적이고 중요한 사건이다. 지금까지 말만 무성했던 구조조정과 과잉캐파 정리가 현실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업 자체로 보면 공급과잉 해소와 가격 안정으로 긍정적 영향이 예상되나, 중국 정부가 썬텍의 사례를 여타 업체의 구조조정 진행을 위한 ‘좋은 본보기’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당사자인 썬텍은 물론 LDK Solar의 주가도 큰 폭 하락하였다.

[그림 1] Suntech과 LDK Sol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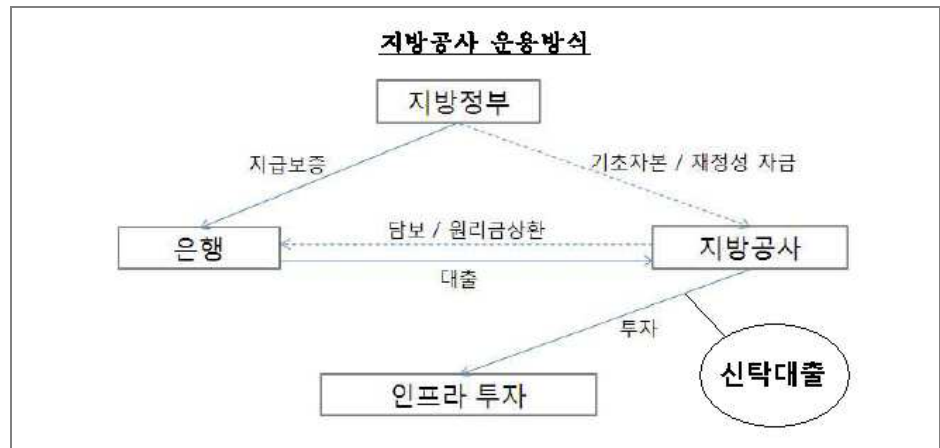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자 금융 등 과도한 유동성 공급을 경계

이 같은 태도 선회는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 팽창에 대한 경계가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 09년 이후 중국 중앙정부의 경기부양은 통상 지방정부를 통해 이루어졌고, 지방정부는 통상 지방정부 용자 플랫폼(Local Government Financial Vehicle; 地方政府融资平台)이라 불리는 별도의 기구를 통해 지방채를 발행, 자금을 조달했다.

[그림 2] 중국 지방정부 용자 플랫폼(地方政府融资平台) 운영 방식



자료: 한국은행 재인용, 한국투자증권

이러한 회사채를 소화했던 주체는 주로 ‘리차이(理財)’라 불리는 신탁상품이었다. 우리나라 저축은행처럼 시중은행보다 예금금리를 1~2%p 낮춰 자금을 유치하되, 고위험 상품에 많이 투자했고 중소기업이나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로 유입되었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측면 점진적인 구조조정에 방점

그러나 경기가 둔화되면서 간간히 버텨오던 중소기업들과 과잉투자된 프로젝트들의 수익성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2011년 말의 원저우 사태인데 최근까지도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비은행 부문에서의 자금 수요가 폭증, 중국 정부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측면에서 ‘구조조정’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 중국 그림자금융 규모 추정 : 사회융자총량 중 비은행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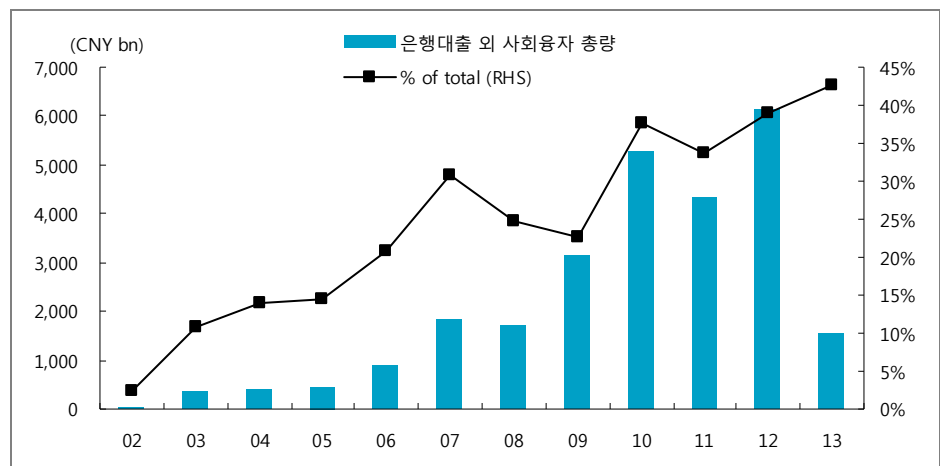
	사회융자 총량	위탁대출	신탁대출	은행 인수어음	회사채 순발행	비금융 기업주식	비은행 대출 비중
2002년	2,011	18	0	-70	37	63	2.4%
2003년	3,411	60	0	201	50	56	10.8%
2004년	2,863	312	0	-29	47	67	13.9%
2005년	3,001	196	0	2	201	34	14.4%
2006년	4,270	269	83	150	231	154	20.8%
2007년	5,966	337	170	670	229	433	30.8%
2008년	6,980	426	315	107	552	333	24.8%
2009년	13,911	678	436	461	1,237	335	22.6%
2010년	14,019	875	386	2,335	1,106	579	37.7%
2011년	12,829	1,296	203	1,027	1,366	438	33.8%
2012년	15,761	1,284	1,289	1,050	2,250	251	38.9%
2013년	3,605	349	387	397	363	41	42.6%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중국 정부가 소규모 석탄광산회사들을 국유화하기로 결정하자 회사를 뺏길 위험에 처한 왕핑안은 즉각 행동에 나섰다. 몇 건의 광산 사고가 발생한 후 중국 북부 산시성 지방정부가 연 생산량 300만톤 이상이 되는 회사들만 사업을 계속하도록 조치했고, 왕핑안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몸집을 키웠다. 국영 은행들이 대출해주기를 꺼리자 그는 개인 투자자들을 찾아갔고 총 50억 위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2011년 이후 석탄 가격이 20%나 폭락하면서 융자금 일부를 갚지 못하게 됐고, 구치소에 수감되는 신세가 됐다. 왕이 받은 가장 큰 액수의 융자는 30억 위안으로 중국 최대 비은행 대출기관 중 하나인 중국대출신탁(CCT)에서 나온 돈이었다. CCT는 중국 최대 은행인 공상은행(ICBC) 고객들에게서 자금을 조달했다. ICBC는 CCT의 대리인 역할을 한 것이다.¹

위의 케이스는 최근 중국 내 그림자금융과 관련된 이해 상충 사례이다. 그간 그림자금융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업계의 구조조정도 미뤄졌으나, 중국 정부의 신용중개시스템에 대한 엄격한 통제 아래 산업 구조조정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림 3] 중국 은행대출 외 사회융자 총량 : 그림자 금융 규모 지속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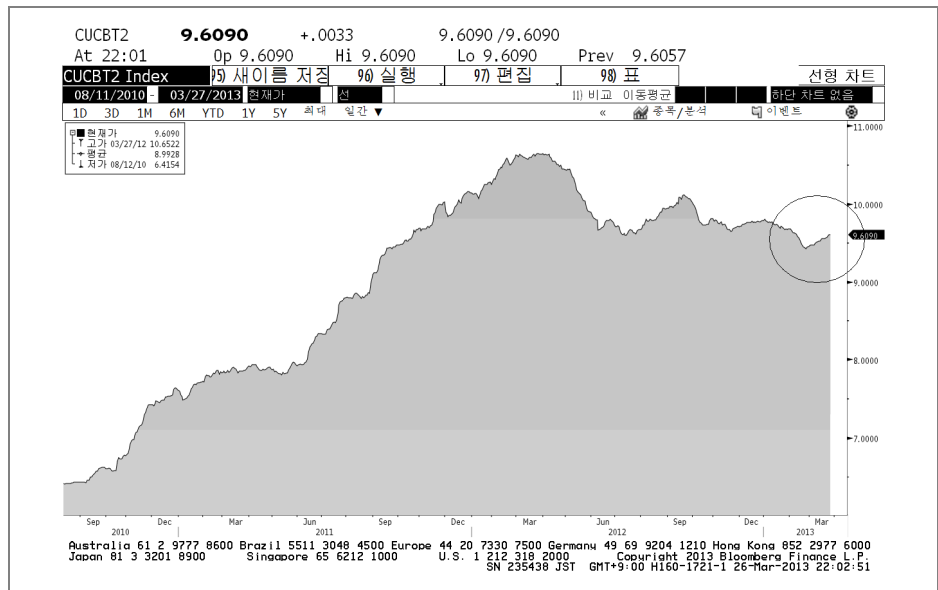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최근 중국의 수입, 전력생산, 소매판매, 산업생산 등 주요 경제지표가 눈에 띄게 부진한데도 중앙정부에서 유동성을 흡수하고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미루었던 구조조정을 시작하는 단계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올해 중국발 모멘텀은 크게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그림자 금융의 잠재적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업들의 CP나 회사채 유통금리가 생각보다(?) 안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BBB-급 회사채 2년물 유통금리는 9%대 중반으로 2010년의 6%대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나, 작년 ‘경착륙’ 운운했던 시점보다는 크게 낮아졌다. 향후 추이를 관찰할 필요는 있겠지만, 아직 경제 전반의 리스크로 번지진 않은 듯 하다.

¹ 2012년 11월 28일자 WSJ 기사 ‘In China, Hidden Risk of Shadow Finance, State Banks Could Share Liability for Defaults, Analysts Say.’ 요약 정리

[그림 4] 중국 회사채 BBB- 2년물 유통금리 : 아직은 조용한 상황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어쨌거나 중국은 구조조정의 의지를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2013년 1월엔 공업정보화부 등 중국 정부부처가 연합으로 ‘중점 업종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의견(關於加快推進重點行業企業兼並重組的指導意見)을 발표하였다. 자동차, 철강, 선박, IT 산업의 구조조정을 진행해 중소기업은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10대 기업 산업집중도를 60~90%까지 끌어올려 핵심 대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시나리오다.

자동차는 이치(一汽), 동평(東風), 상치(上汽), 창안(長安) 등 4대 기업과 베이치(北汽), 광치(廣汽), 치루이(奇瑞), 중치(重汽) 등 4소 업체 중심으로 재편하고 IT 업종은 매출이 1,000억 위안이 넘는 화웨이(華為), 레노버, 하이얼을 중심으로 2~5개사의 대형 핵심 기업을 더 키워낸다는 방침이다. 조선 업종의 경우 세계 10대 조선사 중의 하나인 룡청중공업(龍盛重工), 진하이(金海) 중공업, 다롄조선(大連) 등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 구조조정 이후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중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이나 ▲ 당장의 공급과잉이 줄고 자동차/IT 등 부품사의 경우 납품사 다변화가 가능해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다만 이러한 과도기적 상황으로 인해 올해 중국발 모멘텀이 시장 예상보다 실망스러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인지가 필요하다. 3월 HSBC 제조업 PMI가 전월보다 상당히 잘나온 이후 기대감이 다시 피어나고 있으나, 구조적인 부분이 바뀌기 힘든데다 최근 키프로스 사태로 향후 유럽향 수출둔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표 2〉 중국의 주요 산업 구조조정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KOTRA)

산업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자동차	- 중국 로컬 자동차 기업의 품질 개선 노력으로 한국산 등 수입 자동차 부품 구매를 늘릴 것으로 예상 - 자동차 부품기업과 중국 로컬 완성차 기업간 합자공장 설립 등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중국 자동차 기업 구조조정으로 자체 브랜드 연구개발, 기술력이 향상되어 외국계 완성차 기업에게 불리한 환경 조성 예상
철강	- 구조조정 후 중국 철강 업계 공급과잉이 해소되면서 철강 가격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 가격 출혈경쟁 완화가 우리에게도 유리하게 작용	- 구조조정 후 중국 철강기업의 기술력 제고와 품질개선이 예상되나 현재의 기술격차를 고려할 때 단기간 내 한국산과의 품질 격차를 해소하기는 어려울 전망
조선	- 아직까지는 한중간 조선설비 수준차가 크기 때문에 구조조정 후 설비수준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중국의 선박업이 건조능력에 비해 설비능력이 크게 떨어지나 합병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 집중도와 기술수준을 높여 설비에 대한 국산화율을 제고할 계획. 이는 우리 선박 설비기업에 불리하게 작용
IT		- 화웨이, 레노버 등 기업이 세계시장 점유율을 빠른 속도로 확대해 가는 상황에서 구조조정 이후 기업 규모 확대와 기술력 집중을 통해 중국 IT 정보 산업 기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 - 중국은 12.5 규획기간 중 집적 회로, 디스플레이 제품, 핵심 소자, 중요 전자 재료 및 디지털 전용 설비 측정기 분야에서 핵심기술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힘. - IT 정보 분야에서 우리 제품과 중국 제품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자료: KOTRA 상하이 무역관

■ 투자전략 : 중국 구조조정과 우리의 득실

중기적으로는 산업 내 구조 조정 진행, 경기둔화 요인 IT와 자동차 부품사 차별적 수혜는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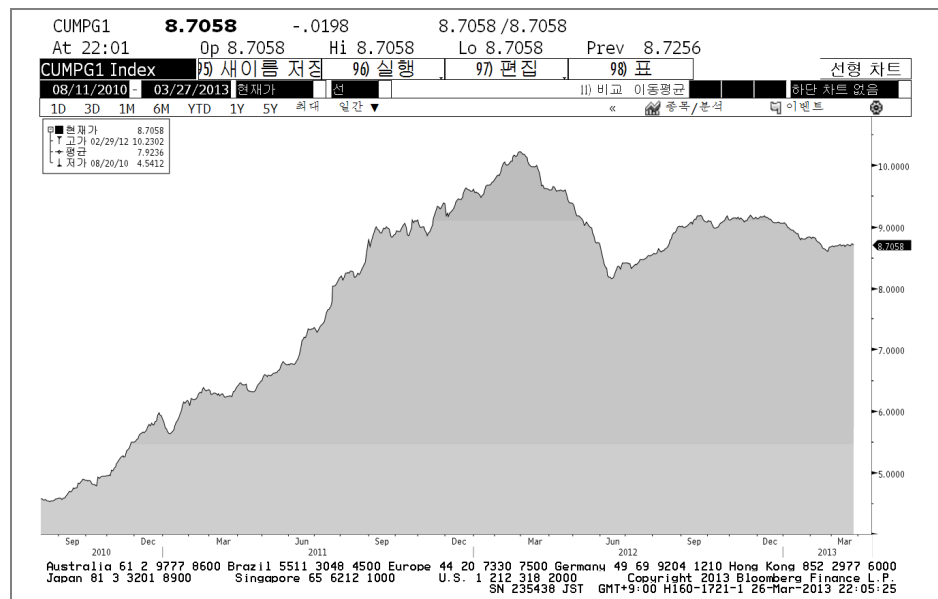
최근 키프로스 사태가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다. 지금까지의 구제금융은 외부 자금을 투입해 대상국을 구제하는 ‘베일아웃(bail-out)’ 방식이었지만, 이번엔 키프로스 은행 예금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베일인(bail-in)’ 방식을 택했다. 이는 손실을 분담한다는 원칙을 명백히 한 또 하나의 사례다. 키프로스는 러시아와 조세회피 관련 자금 등으로 금융업이 커진 특수한 사례라, 여타국가로 리스크가 확산되지는 않겠지만 ‘Risk Appetite’ 측면에서는 마이너스다.

중국의 그림자 금융도 손실을 분담한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한 맥락이다. 특히 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위해 금리를 지나치게 낮게 유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 정부가 춘절 이후 유동성 회수에 나선 것은 물가상승 우려 때문이나, 좀비 기업들에게 유동성이 과도하게 흘러들어가지 않게 미세 조정하는 의도도 크다고 본다.

이 글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 ▲ 중기적으로는 그림자 금융을 비롯한 중국 정부의 유동성 규제책이 산업 내 구조 조정을 가속화하여 과잉 공급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 그러나 당장은 중국 경기의 둔화가 동반될 가능성이 있다.
- ▲ 중국 로컬 대형업체 육성으로 우리 기업과의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 ▲ 그러나 IT와 자동차 업종 내 일부 부품사들의 차별적인 수혜는 기대할 수 있겠다.

[그림 5] 중국 기업어음(Commercial Paper) A- 등급 1년물 금리



자료: Bloomberg

상해종합 대출규제 우려로 1%대 약세

- ▶ 중국 광둥성, '국5조'의 첫 지방 부동산규제 세칙 발표, 개인소득세 징수 관련 세칙 불분명
- ▶ 중국 통화정책위원 송귀칭, 3월 및 올해 CPI 상승률 각각 2.0%, 2.6% 전망
- ▶ 중국 인민은행, 26일 RP 발행 통해 270억 위안 유동성 회수

상해종합지수 1%대 하락.
SOC, 석탄, 은행, 자동차
관련주 급락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가 1% 이상 내리며 닷새 만에 다시 2,300p를 하회했다. 약세 개장 후 장중 한때 2% 가까이 낙폭을 확대했다. 거래금액은 918억 위안으로 직전일 대비 소폭 증가했다.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가 지속되면서 시중은행들의 부동산개발 대출에 대한 통제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현지 언론보도로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광둥성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규제 관련 세칙이 시장의 우려보다 약한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은행 대출 규제와 지역별 세칙발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그 외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천연가스 인상 내용을 부인함에 따라 직전일 급등했던 관련주가 반락했고 해외기관의 투자조건 하향과 지난해 실적 악화 소식에 연주석탄과 동풍자동차가 각각 급락했다. SOC(-2.9%), 석탄(-2.8%), 은행(-2.6%), 증권(-2.4%), 비철금속(-2.1%), 철강(-1.7%), 정유/화학(-1.5%), 전력(-1.4%), 시멘트(-1.3%), 자동차/부품(-1.0%), 일반기계(-0.5%), 부동산(-0.3%) 등이 하락했다. 반면 여행, 음식료, 신재생에너지, 섬유/의류 등은 강세로 마감했다.

■ 홍콩 시장

홍콩H지수 하루 만에 반락.
자동차, 석유, 철도, 항공,
비철금속주 약세

홍콩H지수는 본토증시 약세에 동조하며 하루 만에 반락했다. 데이셀블룸 유로그룹 의장이 키프로스식 구제금융안이 유로존 위기해결의 새로운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해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석유, 철도, 항공, 비철금속 관련종목이 약세였다. 장성자동차의 연간 실적 악화소식으로 자동차업종이 3% 이상 급락했고 국가발개위가 천연가스 가격인상설을 부인한 영향으로 시노펙이 1.4% 내렸다. 반면 은행주는 올해 재테크상품을 전면 정리할 것이라는 건설은행의 발표와 주택대출 통제 우려에도 불구하고 연간실적 호조로 소폭 상승세로 마감했다.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 분	3/26(화)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2,297.67	-1.25	1.78	-2.87	1.26
홍콩 H	10,925.13	-0.48	1.72	-4.48	-4.47
인도 SENSEX	18,696.05	0.08	-1.64	-0.88	-3.76
러시아 RTS	1,456.68	-0.15	-1.50	-5.07	-4.60
브라질 보베스파	54,873.12	-0.67	-3.69	-4.44	-9.97
베트남 VN	489.46	-0.83	1.87	3.14	18.30
MSCI 이머징마켓	1,022.27	0.67	-0.26	-3.07	-3.12

주: 26일 오후 5시 30분 기준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 1,980P선 회복

- 미국증시는 키프로스식 구제금융이 다른 국가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하락 마감. 약보합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 보험권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으나,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의 매수세가 강화되며 상승폭을 확대하며 장중 1,990P선을 회복하는 듯 했으나,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며 1,980P선에서 마감. 코스닥은 외국인과 개인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 강보합세로 마감.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대감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재무구조가 개선되며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한국토지신탁은 신용등급 상향 소식에 급등했으며, 중국시장 성장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베이직하우스도 강세를 보임. 폴리실리콘 가격 및 가동률 상승에 따른 업황 개선 기대감에 태양광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돋보였으며, 국내 자동차부품 수출액이 20년 사이 50배 가까이 급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부품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짐. 반면,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며 연일 급락세를 이어온 에스비엠은 현 대표이사의 횡령설까지 확산되며 상장폐지 우려감에 하한가를 기록

종목/테마	내 용
한국토지신탁(034830) ▶1,435(+7.09%)	신용등급 상향 소식에 급등세 - 국내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신규 주주 확대 및 대손비용 감소 등으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으며, 차입금 부담이 감소해 재무유동성과 유동성 대응 능력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신용등급을 기존 BBB+에서 A-로 상향 조정됐다는 소식에 급등세 - 국내에 있는 11개 부동산신탁회사들 중 최초 A등급의 평가를 받게 됐으며, 이번 신용등급 상향을 통해 100bp 이상의 차입부채 금리 하락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
베이직하우스(084870) ▶18,700(+7.16%)	중국의 소비 진작 효과 가시화 기대감에 급등세 - 지난해 4분기 중국법인이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중국 정부의 내수부양 정책에 따른 소비 증가 기대감에 급등세 - 중국 의류시장에서 1,000여개의 매장을 모두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어, 강한 브랜드 파워를 기반으로 한 외형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
태양광 관련주	업황 개선 기대감에 강세 - 폴리실리콘 가격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태양광업체들의 가동률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강세 - 코닉글로리(094860, +9.19%), 오성엘에스티(052420, +4.94%), 넥솔론(110570, +3.86%), 하이셀(066980, +3.56%), 네페스(033640, +2.259%) 등 강세
자동차부품주	자동차 부품 수출액이 20년 새 50배 가까이 급증했다는 소식에 강세 - 자동차부품 수출액이 50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소식과 함께 최근 원엔 환율 반등세에 따른 완성차 업체의 수출 경쟁력 회복 기대감 강세 - 우수AMS(066590, +6.47%), 세원정공(021820, +5.80%), 한라공조(018880, +3.40%), 에스엘(005850, +3.10%), 현대위아(011210, +3.04%), 현대차(005380) 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유망종목: 하이닉스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SK하이닉스 (000660)	29,500 (+3.1)	28,600 (3/21)	- 갤럭시S4 등 신규 스마트폰 출시로 모바일 DRAM의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신규 스마트폰 및 SSD 보급 확대로 NAND수요도 견조할 것으로 전망됨 - 업황 개선에 따른 본격적인 실적 개선 모멘텀이 예상되며, 하반기 PC 수요 회복 시에는 PC DRAM 공급 부족이 심화될 가능성도 상존
우주일렉트로 (065680)	27,300 (-1.3)	27,650 (3/05)	- 일본 경쟁업체 대비한 경쟁력 열위를 극복하여 주요 고객 내에서 점유율 확대 추세 - 금년 1분기에는 2011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13%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전망 - IMT(In Mold Technology), FFC(Flexible Flat Cable), 자동차용 커넥터 등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 부각 가능성 상존
기아차 (000270)	55,700 (+1.3)	55,000 (2/26)	- 1월 중국 판매가 사상 최대를 기록함에 따라 1월 세계 시장 점유율도 사상 최고치인 3.9%(전년동월 3.5%)를 달성. 또한 최저 수준의 재고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3월과 5월에 K3와 K7의 미국 판매를 시작으로 신차 모멘텀 기대 - 신모델 출시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를 감안할 때 환율 안정 시에는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에스엘 (005850)	14,950 (+11.2)	13,450 (2/06)	- A/S부품 비중 상승(에스엘루막스), GM납품 물량 증가(에스엘연대), 제품믹스 개선(에스엘미국) 등으로 지분법 이익 견고. 글로벌 경쟁업체 대비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 현대의 중국 3공장과 브라질공장 가동효과, 미국 테네시공장의 램프 생산능력 확장, 동사 램프를 탑재하는 신모델 출시 등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실적 흐름 지속 예상
엠씨넥스 (097520)	13,950 (+74.2)	8,010 (1/31)	- 작년 하반기부터 휴대폰 카메라 모듈을 삼성으로 공급하기 시작, 향후 물량 확대 가능성 상존. 또한 ZTE, 화웨이 등 중국 로컬업체와의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특히 ZTE의 신규 최신행 스마트폰 '그랜드S'에 13M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기 시작하는 등 중국향 매출 신장 기대 -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의 경우, 높은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 중. 향후 미국 내 자동차 후방카메라 의무장착 법안 추진 시 수혜 예상
에스맥 (097780)	16,400 (-0.6)	16,500 (1/21)	- 각종 IT기기에 적용이 되는 입력모듈(Key Module, Touch Screen Module 등)을 개발/생산하는 업체로, 태블릿 PC 시장 성장과 삼성전자 내 점유율 확대에 힘입어 안정적인 성장세 지속 전망 - 터치패널용 핵심부품인 ITO 센서 라인을 증설하여 2013년 상반기 내에는 내재화 비율 100%를 달성할 전망. 여타 터치패널 관련주 대비 저평가 매력 상존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하이닉스, 기아차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현재 에스맥 발행주식의 자기주식취득 위탁 증권사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유한양행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3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유한양행 (000100)	187,500 (+0.8)	186,000 (3/21)	918	64	130	12,330	15.2
- 신제품 효과로 1분기 실적 호조가 전망되며, 하반기에는 API(원료의약품)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유한화학(100% 지분 소유)의 증설효과가 예상됨 - 유한킴벌리의 프리미엄 기저귀의 중국 수출 확대와 바이오 회사 지분투자 및 외부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를 통한 성장 스토리에 대한 기대 유효 - 장기 성장성, 실적 모멘텀, 업종 내 상대적 저평가 매력 등을 주목할 필요							
LG전자 (066570)	82,800 (+6.7)	77,600 (2/26)	53,357	1,562	1,116	6,197	13.4
- 2012년 휴대폰 부분의 흑자 전환에 성공한 가운데 스마트폰 경쟁력 강화 및 ASP 상승으로 수익성 개선 추세 지속 전망 - 가전, TV, 에어컨 부분의 견고한 경쟁력을 감안할 때 글로벌 Peer그룹 대비 상대적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SK이노베이션 (096770)	160,000 (-6.2)	170,500 (2/06)	67,991	2,326	1,731	18,578	8.6
- 유가 안정과 정제마진 개선, PX/ BTX 등 주요 화학제품 스프레드 확대 등으로 1분기 실적 개선 예상 - 정유사업의 실적 변동성 축소로 인한 이익 개선과 석유개발사업은 안정적인 이익 규모를 유지할 전망							
대덕GDS (004130)	18,350 (+0.3)	18,300 (1/21)	578	58	49	2,156	8.5
- 모바일기기에 고화소 카메라 모듈 탑재 확대는 주력제품인 Rigid Flexible (R/F) FPCB 판매 호조를 견인할 전망 - FPCB와 모바일 메인보드용 HDI 매출비중이 2012년 55%에서 2013년 63%까지 확대되며, 가전에 탑재되는 범용 PCB 제품 비중이 축소되는 대신, 직하형 LED TV에 탑재되는 고부가가치 LED BAR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사업부의 제품 mix 개선에 따른 이익률 개선 기대							
농심 (004370)	290,000 (+6.6)	272,000 (1/3)	2,148	133	128	22,127	13.1
- 삼다수사업 철수, 벤조피렌 이슈 등으로 주가 부진했으나, 자체 브랜드 '백산수' 런칭과 프리미엄 신제품 (블랙신컵 및 신라면블랙) 판매 호조, 수출 증가 등을 주목할 필요 - 라면시장 점유율 회복, 경쟁구도 안정화, 제품라인업 강화, 기저효과 등으로 수익성 개선 추세 지속 전망							
NHN (035420)	266,500 (+17.1)	227,500 (1/2)	2,694	779	580	13,205	20.2
-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높은 검색 점유율 유지 -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인 '라인(LINE)'의 일본 등 해외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로 중장기 성장원 확보 - 워닝일레븐 온라인 등 신규 대작 게임들의 출시로 웹보드게임 부진을 만회할 전망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NHN, SK이노베이션, LG전자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은행: 국민행복기금 출범으로 가계부채 리스크 완화 가속화 전망

■ 구체화된 국민행복기금, 3월 29일 출범할 예정

국민행복기금이 3월 29일 출범한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국민행복기금 주요 내용은 기존에 알려졌던 것보다 구체화 되었으나 큰 틀은 변화가 없으며 따라서 기금 출범에 대한 우리의 긍정적인 시각도 그대로 유지한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1) 금융회사들의 장기연체채권(학자금대출 포함) 매입 및 채무 조정이 주요 내용이며 2)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채권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 1. 기금의 운용: 6개월 이상 연체채권이 매입대상으로 기존 전망과 변화없음

행복기금 출범으로 인해 은행주가 영향을 받는 경로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은행이 행복기금에 연체채권 매각시 매각손익의 발생(기금의 운용)이고 두 번째는 행복기금 조성 과정에서 은행이 채권(공사채 또는 기금채) 매입하거나 지분 출자함으로써 기금 조성에 참여 가능성(기금의 조달)이다.

매입대상이 되는 채권은 이미 알려진 내용과 같이 연체기간 6개월 이상이고 채권규모가 1억원 이하인 신용대출채권이다. 은행의 경우 원리금 연체일수가 1일~1개월 이상이면 연체로 분류되기 시작하여 통상적으로 3개월 이상이면 고정이하, 6개월 이상이면 추정손실로 분류되며 대부분 100% 충당금 전입이 완료된다. 따라서 행복기금에 6개월 이상의 연체채권 매각시 추가 전입이나 상각손실의 여지는 매우 낮다.

■ 2. 기금의 조달: 기존 대비 1.5조원으로 축소되었으나 가계 부실채권 절반으로 낮출 것

우리가 행복기금 출범에 대해 긍정적이었던 주요 이유는 국민행복기금이 1) 가계부채 배드뱅크 역할을 하고 2) 가계부채 1,100조원 중 부실채권으로 추정하는 20조원 중 상당부분을 처분함으로써 가계부채 리스크 해소에 결정적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오늘 금융위 발표에서도 가계부채 부실채권 규모를 2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중 약 9.5조원을 기금을 통해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애당초 1.8조원으로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던 기금의 규모는 1.5조원으로 낮아졌다. 이 중 8천억원은 신용회복기금에서 즉시 사용가능한 5천억원과 차입금 및 후순위채권 발행으로 조달될 예정이다. 전환대출 사업에 소요될 나머지 7천억원은 채권 회수액과 보증수수료수입 등으로 보전할 계획이다. 기금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기금채 또는 공사채를 발행할 경우 이자부담이 생기므로 규모를 최소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은행이 기금 조성에 관여할 여지도 적어졌다. 비록 기금의 규모는 예상보다 작아졌지만 8천억원이라고 해도 원금의 10% 이하의 가격으로 매입하므로 가계부채 원리금 9.5조원을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밝혔다. 이는 가계부채 부실채권 20조원을 절반 가까이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 3. 고금리 대출의 전환: 기금이 보증서는 대출이므로 은행 영향없음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바퀴드림론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국민행복기금 출범에 맞춰 6개월간(4월 1일~9월 30일) 한시적으로 바퀴드림론 지원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바퀴드림론은 채무자가 신청하면 국민행복기금에서 보증하는 은행 대출로 지원해주는 것이다. 행복기금이 보증하므로 은행 입장에서는 대손리스크가 없다.

*상기 보고서는 2013년 3월 2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이녹스(088390)

매수(유지)

목표가: 36,000원(유지)

종가(3/25): 26,350원

1Q13 Preview: 제품 mix 개선 및 엔화 약세 수혜 지속

■ 1분기 영업이익 12.8% QoQ 상승, 당사 기대치를 충족시킬 전망

이녹스의 1분기 실적은 매출액 420억원(+12.8% QoQ, +29.3% YoY), 영업이익 67억원+39.6% QoQ, +36.7% YoY)로 우리 기존 추정치를 충족할 전망이다. 1분기 영업이익률이 전 분기 대비 3.1%p 개선될 것으로 보는데, 1) SmartFlex (Two-layer FCCL, EMI 차폐필름) 매출이 1분기에 발생하면서 흑자 전환하였고, 2) 엔화 약세 지속으로 원재료비의 45%를 일본업체에서 구매하는 동사가 수혜를 입은 것이 주요 요인으로 파악된다.

■ 최근 FPCB 산업 내 공격적인 가격 경쟁 영향은 소재 업체인 동사에게 제한적일 전망

최근 시작된 FPCB 산업 내 공격적인 가격 경쟁 영향은 동종 FPCB 업체에게는 분명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FPCB 소재를 공급하는 이녹스의 경우, 이러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데, 1) FPCB 소재 시장 과점화로 (이녹스 점유율 60%) 단가 인하 압력이 타 부품대비 낮으며, 2) 2013년 매출 성장의 80%가 신제품군과 반도체 소재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2008년 말부터 FPCB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0~10%까지 움직인 반면, 이녹스의 영업이익률은 12~14% 구간에서 일정하게 움직였다는 점 도 우리의 견해를 뒷받침한다.

■ 2분기부터 신규 제품군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

동사의 2분기 매출액은 475억원 (+14.5% QoQ, +54.2% YoY), 영업이익은 77억원(+14.9% QoQ, +92.5% YoY)으로 한 단계 레벨업될 것으로 예상된다. 1) 1분기부터 시작된 갤럭시S4용 Two-layer FCCL 매출이 2분기부터 본격화되고, 2) 갤럭시 노트 시리즈에 들어가는 S-Pen용 디지털라이저 소재 납품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특히, 신제품 디지털라이저 소재의 경우, 삼성전자의 공급처 이원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고, 신규 진입한 이녹스가 주요 공급업체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녹스의 2013년 디지털라이저 매출액은 235억원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주요 고객사 내 점유율 12.3%로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 2013년 매출액 2,071억원, 영업이익 346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전망

이녹스에 대한 투자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6,000원을 유지한다. 목표주가는 2013F EPS에 목표 PER 12배(글로벌 FPCB 소재 업체 평균)를 적용해 산출했다. 투자포인트는 1) 신제품 디지털라이저 및 FCCL의 본격적인 매출 발생으로 인한 신규 사업부(SmartFlex)의 흑자 전환, 2) 전방산업인 FPCB 사이클 대비 동사의 안정적인 이익 창출능력, 3) 원재료비 내 높은 엔화 exposure로 인한 영업이익률 개선 등이다. 2013년 EPS는 128% 증가해 소재 업체로서는 매우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현 주가 대비 상승여력은 37%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세전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2010A	103	14	12	9	1,141	81.1	16	10.4	7.7	1.9	22.2
2011A	115	14	11	9	1,067	(6.5)	19	15.5	9.7	2.3	16.0
2012P	142	20	15	12	1,306	22.4	28	14.9	8.5	2.4	17.0
2013F	207	35	32	27	2,978	128.1	43	8.8	7.3	2.3	30.4
2014F	269	45	43	33	3,623	21.6	54	7.3	5.9	1.8	27.5

*상기 보고서는 2013년 3월 25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이수정 (sujeong.lee@truefriend.com) ☎ 02-3276-6252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03/19(화)	03/20(수)	03/21(목)	03/22(금)	03/25(월)	03/26(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978.56	1,959.41	1,950.82	1,948.71	1,977.67	1,983.70
	등락폭	10.38	-19.15	-8.59	-2.11	28.96	6.03
	등락종목						
	상승(상한)	472(3)	252(8)	298(2)	429(6)	544(7)	384(1)
	하락(하한)	322(2)	565(1)	494(7)	370(2)	266(3)	411(1)
	ADR	102.76	97.97	91.83	95.42	98.23	99.89
	이격도						
	10 일	99.11	98.45	98.29	98.47	100.06	100.41
	20 일	98.74	97.85	97.60	97.65	99.21	99.57
	투자심리	50	40	40	30	40	50
코스닥	거래량 (백만 주)	322	327	258	252	272	288
	거래대금 (십억 원)	3,646	3,728	3,489	3,303	3,408	3,423
	코스닥지수	550.01	546.26	544.56	551.25	549.56	549.90
	등락폭	8.92	-3.75	-1.70	6.69	-1.69	0.34
	등락종목						
	상승(상한)	711(9)	297(10)	374(5)	583(6)	536(8)	436(13)
	하락(하한)	226(4)	640(9)	546(11)	341(11)	377(5)	476(1)
	ADR	107.67	102.15	97.90	102.11	102.46	102.64
	이격도						
	10 일	100.69	99.97	99.60	100.67	100.20	100.15
	20 일	102.14	101.22	100.73	101.71	101.21	101.06
	투자심리	70	60	60	60	60	60
	거래량 (백만 주)	488	477	457	403	378	378
	거래대금 (십억 원)	1,936	2,160	1,952	1,897	1,800	1,867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	타
유가 증권	매수	1,567.7	1,424.4	963.1	148.8	116.2	254.1	82.6	25.5	306.5	54.2		
	매도	1,653.5	1,459.1	859.4	192.0	136.2	305.3	38.1	21.7	141.0	37.4		
	순매수	-85.8	-34.7	103.7	-43.3	-20.0	-51.2	44.4	3.8	165.5	16.8		
	03 월 누계	1,372.7	-2,237.0	844.1	62.9	-7.1	-593.7	60.9	42.1	641.7	20.3		
	13 년 누계	684.1	-2,557.6	2,182.6	996.5	375.6	-1,916.5	-117.7	83.2	2,112.2	-309.1		
코스 닥	매수	1,689.8	123.2	121.6	32.5	11.1	34.7	7.9	5.9	24.3	13.4		
	매도	1,713.7	83.4	130.6	20.0	15.6	43.6	12.4	2.4	27.5	20.4		
	순매수	-23.9	39.9	-9.0	12.5	-4.4	-8.9	-4.5	3.5	-3.2	-7.0		
	03 월 누계	-316.1	336.1	57.7	4.9	6.5	-25.1	-42.1	11.2	56.0	-77.8		
	13 년 누계	-954.6	637.3	548.8	79.0	34.9	123.1	-27.7	-2.2	296.3	-231.5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14,663	서비스업	-18,269
금융업	13,378	화학	-16,781
운수장비	12,639	유통업	-14,478
삼성전자	19,006	삼성물산	-6,515
신한지주	9,634	KT	-5,381
현대차	8,363	POSCO	-4,957
하나금융지주	3,078	LG	-4,823
SK텔레콤	2,647	한국전력	-4,529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70,961	건설업	-2,296
운수장비	43,491	운수창고	-1,888
서비스업	18,548	음식료품	-1,390
삼성전자	57,189	대한항공	-3,056
현대차	18,059	오리온	-2,785
기아차	13,210	KB금융	-2,709
삼성전기	11,647	제일기획	-1,844
신한지주	6,369	롯데케미칼	-1,762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가스업	3,000	전기,전자	-6,892
운수장비	2,503	철강및금속	-1,039
서비스업	2,292	기계	-872
한국전력	2,168	LG이노텍	-2,614
LS	1,032	SK하이닉스	-2,564
기아차	961	일진머티리얼즈	-1,936
삼성테크윈	927	두산인프라코어	-890
한국가스공사	815	호텔신라	-854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기계	2,863	화학	-12,540
운수장비	1,184	철강및금속	-7,528
건설업	1,157	전기가스업	-2,863
TIGER 200	16,195	LG화학	-11,086
KODEX 200	12,043	기아차	-6,109
KStar 200	9,326	현대제철	-5,110
현대차	3,342	SK하이닉스	-4,987
LG전자	3,140	KODEX 자동차	-3,456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73,196	화학	-26,534
전기,전자	70,687	철강및금속	-18,995
금융업	18,271	운수창고	-11,353
삼성전자	89,427	SK하이닉스	-18,011
KODEX 레버리지	41,856	KODEX 인버스	-10,551
현대차	31,351	KT	-9,688
기아차	23,444	현대제철	-8,288
KODEX 200	14,112	롯데케미칼	-7,336
현대모비스	8,293	POSCO	-7,231
신한지주	7,931	한국가스공사	-6,833
미래에셋증권	7,116	현대글로벌비스	-6,567
LG전자	5,823	대한항공	-6,471
삼성전기	5,492	코스맥스	-5,300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67,843	서비스업	-37,817
운수창고	7,293	화학	-37,449
보험	6,468	금융업	-33,803
SK하이닉스	67,626	삼성엔지니어링	-28,002
LG전자	14,144	삼성전자	-20,041
POSCO	9,407	LG화학	-19,655
LG디스플레이	9,150	KODEX 200	-17,965
현대글로벌비스	8,510	OCI	-13,260
현대차	7,488	한국전력	-11,235
현대백화점	6,548	신한지주	-11,173
KT	6,399	NHN	-8,284
대림산업	5,318	KODEX 레버리지	-7,517
GS	3,762	우리금융	-7,214

주: 외국인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컴퓨터서비스	1,366	IT부품	-3,009	도매	1,672	반도체	-7,670
음식료,담배	1,019	도매	-2,226	제약	1,091	통신서비스	-2,997
소프트웨어	882	전문기술	-2,199	음식료,담배	883	전문기술	-1,878
포스코 ICT	1,423	에스엠	-2,034	씨티씨바이오	1,595	루멘스	-3,681
코나아이	1,248	인터플렉스	-1,948	게임빌	1,049	SK브로드밴드	-3,004
매일유업	1,163	씨티씨바이오	-1,743	메디톡스	881	서울반도체	-2,389
옵트론텍	964	CJ E&M	-1,356	이지바이오	763	CJ E&M	-1,878
제이콘텐트리	876	오스템임플란트	-1,304	솔브레인	661	씨젠	-1,043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인터넷	624	제약	-225	음식료,담배	769	IT부품	-1,437
컴퓨터서비스	536	사업지원	-136	화학	461	반도체	-1,372
IT부품	372	소매	-121	제약	403	전문기술	-1,191
다음	624	씨젠	-248	로엔	575	CJ E&M	-1,230
포스코 ICT	485	하나투어	-190	위메이드	425	파트론	-975
이녹스	344	캠트로닉스	-132	매일유업	401	골프존	-910
한국토지신탁	263	서부T&D	-121	이엠텍	350	에스엠	-722
한국사이버결제	195	엘비세미콘	-106	에스맥	344	뷰웍스	-646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음식료,담배	3,824	반도체	-11,202	IT부품	6,091	기계,장비	-2,677
컴퓨터서비스	2,127	IT부품	-5,853	반도체	4,608	교육	-2,585
교육	910	전문기술	-5,769	방송서비스	2,924	금속	-1,334
매일유업	2,688	SK브로드밴드	-4,931	셀트리온	2,913	씨젠	-3,593
포스코 ICT	2,514	서울반도체	-4,848	CJ E&M	2,600	메가스터디	-2,566
제이콘텐트리	1,440	CJ E&M	-4,743	파트론	2,477	비에이치	-2,470
옵트론텍	1,425	루멘스	-3,944	이엠텍	2,395	SK브로드밴드	-1,081
메디톡스	1,409	씨티씨바이오	-3,303	성우하이텍	1,940	SBS콘텐츠헤브	-757
코나아이	1,272	인터플렉스	-2,973	루멘스	1,588	네오위즈게임즈	-746
이지바이오	1,227	에스엠	-2,437	CJ오쇼핑	1,546	3S	-734
바이로메드	1,184	씨젠	-2,333	잉크테크	1,419	에이블씨엔씨	-727
위메이드	828	비에이치	-1,684	GS홈쇼핑	1,289	제이브이엠	-665
한국토지신탁	804	에이블씨엔씨	-1,678	한글과컴퓨터	1,282	진성티이씨	-626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삼성전기	21 일	일성신약	26 일	이트레이드증권	66 일	GS홈쇼핑	8 일
태광산업	13 일	LG패션	26 일	메가스터디	16 일	다산네트웍스	8 일
아모레G	12 일	하이닉스	16 일	동국산업	7 일	모두투어	6 일
유니드	12 일	아세아시멘트	13 일	동진세미캠	7 일	우리이티아이	6 일
엔씨소프트	10 일	KT&G	10 일	파트론	7 일	차바이오앤	6 일
KOSEF 인버스	10 일	GS	9 일	오성엘에스티	6 일	하나투어	5 일
두산	9 일	진로	6 일	크레듀	6 일	아미노로직스	5 일
세방전지	9 일	종근당	6 일	포스코 ICT	5 일	포스코컴텍	4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삼성전자	394,335	SK하이닉스	126,718	에이블씨엔씨	17,020	GS홈쇼핑	15,262
KODEX 200	233,289	LG전자	58,968	조이맥스	5,351	차바이오앤	6,211
현대차	97,721	기아차	28,511	포스코 ICT	5,350	덕산하이메탈	4,664
삼성물산	53,551	현대글로벌비스	27,531	코나아이	5,028	성우하이텍	4,529
엔씨소프트	53,346	KT&G	18,460	제이콘텐트리	4,220	CJ E&M	4,364
KODEX 인버스	51,193	SK텔레콤	14,185	이니텍	3,949	하나투어	3,692
기아차	47,220	현대백화점	13,746	컴투스	3,359	모두투어	3,125
현대모비스	41,016	GS	12,955	포스코엠텍	3,227	서울반도체	2,890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전기,전자	70,687	67,843	138,529	음식료,담배	3,824	110	3,934
보험	4,370	6,468	10,838	연구,개발	865	620	1,485
건설업	2,699	1,302	4,001	인터넷	4	1,024	1,028
현대차	31,351	7,488	38,839	이옴텍	575	2,395	2,970
LG전자	5,823	14,144	19,967	매일유업	2,688	96	2,784
현대위아	3,635	1,260	4,895	잉크테크	529	1,419	1,947
동부화재	2,382	1,857	4,240	옵트론텍	1,425	309	1,734
삼성생명	1,937	1,225	3,162	바이로메드	1,184	483	1,667
한전기술	1,752	1,169	2,921	한글과컴퓨터	160	1,282	1,442
현대해상	1,448	1,069	2,517	GS홈쇼핑	144	1,289	1,434
한전KPS	1,177	1,142	2,319	위메이드	828	520	1,348
롯데삼강	839	1,358	2,197	코나아이	1,272	44	1,316
동양기전	600	1,337	1,937	한국토지신탁	804	252	1,056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TIGER S&P500선물(H)	40 일	금호석유	19 일	인터플렉스	11 일	KCC건설	32 일
제일기획	19 일	GS건설	17 일	포스코컴텍	8 일	SK브로드밴드	9 일
LG패션	17 일	효성	16 일	심텍	7 일	SBS콘텐츠헤브	9 일
LG생활건강	16 일	LG화학	14 일	덕산하이메탈	7 일	에이블씨앤씨	7 일
현대글로비스	15 일	KODEX 200	14 일	모두투어	7 일	이트레이드증권	6 일
KINDEX 코스닥스타	12 일	현대증권	12 일	하이록코리아	6 일	케이디씨	5 일
후성	10 일	삼성전기	12 일	하나투어	6 일	원익IPS	5 일
KODEX Japan	9 일	SKC	10 일	성우하이텍	4 일	EG	5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KODEX 레버리지	-235,604	삼성전자	-430,362	인터플렉스	-13,661	에이블씨앤씨	-12,398
SK하이닉스	-58,374	KODEX 200	-254,406	CJ E&M	-7,784	이니텍	-6,391
현대글로비스	-38,938	한국전력	-80,376	모두투어	-7,012	메가스터디	-5,551
KT	-31,380	현대차	-78,077	덕산하이메탈	-6,730	씨젠	-5,181
KT&G	-18,634	롯데케미칼	-71,132	성우하이텍	-5,825	SK브로드밴드	-5,122
삼성SDI	-17,289	삼성엔지니어링	-65,868	루멘스	-5,693	에스엠	-3,236
대한항공	-17,153	LG화학	-63,592	하이텍팜	-5,207	비에이치	-3,110
LG디스플레이	-16,978	신한지주	-63,555	에스비엠	-4,620	셀트리온	-2,957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화학	-26,534	-37,449	-63,983		통신서비스	-5,043	-1,077	-6,120	
전기가공업	-9,081	-7,928	-17,009		도매	-4,083	-448	-4,532	
음식료품	-715	-1,696	-2,411		기계,장비	-904	-2,677	-3,581	
LG화학	-3,260	-19,655	-22,915		SK브로드밴드	-4,931	-1,081	-6,012	
한국전력	-2,667	-11,235	-13,902		씨젠	-2,333	-3,593	-5,926	
OCI	-444	-13,260	-13,704		비에이치	-1,684	-2,470	-4,154	
KODEX 인버스	-10,551	-872	-11,423		씨티씨바이오	-3,303	-330	-3,632	
롯데케미칼	-7,336	-3,842	-11,178		에이블씨앤씨	-1,678	-727	-2,405	
NHN	-1,459	-8,284	-9,742		제이브이엠	-1,013	-665	-1,678	
현대제철	-8,288	-1,064	-9,352		파라다이스	-794	-401	-1,195	
오리온	-1,926	-4,443	-6,369		SBS콘텐츠헤브	-312	-757	-1,069	
SKC	-3,333	-2,321	-5,654		이니텍	-542	-406	-948	
코스맥스	-5,300	-14	-5,314		아이엠	-734	-28	-762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KODEX 200	887	23,174
삼성전자	9	13,093
대우조선해양	307	8,653
현대제철	99	8,089
롯데케미칼	30	6,198
SK하이닉스	205	5,957
엔씨소프트	33	5,177
삼성엔지니어링	34	4,512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40	2,144
에스에프에이	32	1,908
오스템임플란트	32	1,048
컴투스	16	853
에스엠	16	772
코오롱생명과학	8	689
인터플렉스	16	613
메디포스트	7	589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4,227	6,319,059
POSCO	9,497	3,067,615
LG전자	24,522	2,027,955
OCI	8,437	1,371,073
현대차	5,417	1,167,372
SK하이닉스	32,871	954,892
NHN	3,490	943,974
현대모비스	2,663	800,286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10,578	564,856
서울반도체	4,408	128,934
에스엠	1,874	85,737
파라다이스	3,878	82,213
씨젠	1,132	77,964
파트론	2,826	73,483
덕산하이메탈	2,538	69,676
차바이오텐	5,588	65,096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금융업	6,091	운수창고	-3,078
서비스업	4,806	증권	-3,066
건설업	2,931	통신업	-1,216
KB금융	3,771	LG전자	-3,955
SK하이닉스	3,351	한진중공업	-2,198
대우조선해양	2,495	KT	-2,152
LG디스플레이	1,969	STX조선해양	-2,036
삼성중공업	1,962	삼성증권	-1,884
대우건설	1,721	현대상선	-1,563
기아차	1,463	외환은행	-1,354
우리금융	1,334	두산인프라코어	-1,232
BS금융지주	1,102	한진해운	-987
강원랜드	944	STX팬오션	-919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순 증		순 감	
전문기술	2,170	제약	-6,342
반도체	1,444	오락,문화	-178
디지털컨텐츠	852	출판,매체복제	-136
인터파크	1,989	셀트리온	-6,533
루멘스	632	이엘케이	-262
서희건설	521	파라다이스	-183
차바이오텐	520	우리이티아이	-170
유원컴텍	457	크루셀텍	-157
파트론	436	SM C&C	-116
네오위즈게임즈	430	오스템임플란트	-113
텍셀네트컴	249	와이솔	-109
원익IPS	238	오성엘에스티	-108
게임빌	198	멜파스	-103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03/20(수)	03/21(목)	03/22(금)	03/25(월)	03/26(화)
외국인	-2,557.6	-2,237.0	-1,101.4	-374.3	-269.2	-330.2	-92.9	-34.7
기관계	2,182.6	844.1	589.5	94.1	15.0	216.9	159.8	103.7
(투신)	-1,916.5	-593.7	29.9	-45.9	39.0	61.1	27.0	-51.2
(연기금)	2,136.6	610.8	364.2	76.8	57.6	12.7	50.5	166.6
(은행)	83.2	42.1	18.3	11.9	-8.5	15.3	-4.3	3.8
(보험)	375.6	-7.1	-81.7	8.3	-27.0	-34.1	-9.0	-20.0
개인	684.1	1,372.7	497.7	274.0	254.1	118.1	-62.7	-85.8
기타	-309.1	20.3	14.2	6.3	0.1	-4.8	-4.2	16.8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03/19(화)	03/20(수)	03/21(목)	03/22(금)	03/25(월)
KOSPI	1,682.77	2,051.00	1,825.74	1,978.56	1,959.41	1,950.82	1,948.71	1,977.67
고객예탁금	12072.0	14068.5	17680.2	18579.0	18071.0	17656.6	17160.9	17413.4
(증감액)	2735.7	1996.5	3611.7	-138.0	-99.70	-115.0	-495.7	252.5
(회전율)	52.6	51.5	34.2	24.0	21.0	18.0	31.2	30.5
실질예탁금 증감	-292.5	-3502.6	3775.5	97.0	87.0	101.0	-223.1	475.7
신용잔고	4359.5	5938.3	4476.3	4353.8	4338.8	4355.3	4392.3	4404.7
미수금	240.2	192.3	187.7	129.5	154.5	127.5	131.2	143.9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03/18(월)	03/19(화)	03/20(수)	03/21(목)	03/22(금)
전체 주식형	91,315	-2,524	-856	-102	-165	103	-3	100
(ex. ETF)		-2,715	-578	-22	-1	-46	-2	63
국내 주식형	66,411	-1,568	-602	-52	-158	103	6	106
(ex. ETF)		-1,769	-325	28	5	-46	7	69
해외 주식형	24,904	-956	-255	-50	-7	0	-9	-6
(ex. ETF)		-946	-253	-50	-6	0	-9	-6
주식 혼합형	9,581	-428	-209	34	6	-2	-102	-87
채권 혼합형	20,439	1,243	574	47	13	115	85	75
채권형	49,349	1,740	580	196	-4	-93	-56	-3
MMF	81,399	17,999	4,253	-40	-380	1,714	311	-1,570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03/19(화)	03/20(수)	03/21(목)	03/22(금)	03/25(월)
한 국	-2,312	-2,004	-2,144	-335	-241	-295	-84	-31
대 만	355	-1,182	-1,158	-459	-153	-85	50	-28
인 도	9,897	1,659	-483	-29	76	38	-	-
인도네시아	1,770	20	-567	1	-43	-31	-98	-
태국	60	145	-396	-110	-22	3	-25	-
남아공	504	-443	-242	-78	-	-86	-33	-
필리핀	972	160	-44	-14	-15	-17	-5	7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2년	03/19(화)	03/20(수)	03/21(목)	03/22(금)	03/25(월)	03/26(화)
회사채 (AA-)	3.29	2.93	2.94	2.94	2.92	2.92	2.92
회사채 (BBB-)	8.80	8.55	8.55	8.55	8.53	8.54	8.54
국고채 (3년)	2.82	2.60	2.60	2.59	2.58	2.58	2.58
국고채 (5년)	2.97	2.68	2.68	2.67	2.66	2.66	2.66
국고채 (10년)	3.16	2.89	2.90	2.89	2.87	2.88	2.88
미 국채 (10년)	1.76	1.90	1.98	1.95	1.96	1.92	-
일 국채 (10년)	0.80	0.60	0.60	0.60	0.57	0.56	-
원/달러	1,070.60	1,111.55	1,116.10	1,115.70	1,119.30	1,110.80	1,105.70
원/엔	1,243.73	1,165.00	1,172.00	1,170.00	1,179.94	1,174.57	1,174.02
엔/달러	86.08	95.43	95.30	95.41	94.89	94.57	94.18
달러/유로	1.32	1.29	1.29	1.29	1.30	1.29	1.29
DDR3 1Gb (1333MHz)	0.67	1.02	1.01	1.04	1.04	1.04	-
DDR3 2Gb (1333MHz)	1.07	1.69	1.69	1.73	1.75	1.75	-
NAND Flash 16Gb (MLC)	1.89	3.00	3.00	3.00	2.98	2.98	-
CRB 지수	295.01	293.13	294.94	294.05	294.70	294.70	-
LME 지수	3,454.5	3,270.0	3,294.4	3,280.7	3,311.4	3,295.8	-
BDI	699	912	923	930	933	935	-
유가 (WTI, 달러/배럴)	91.82	92.16	92.95	92.70	93.71	93.71	-
금 (달러/온스)	1,663.40	1,611.30	1,607.50	1,613.80	1,606.10	1,604.5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18	19	20	21	22
韓> 2월 생산자 물가지수 YoY (-1.6%, n/a, -1.6%) 美> 3월 NAHB 주택시장지수 (44, 48, 46) 유럽> 1월 유로권 무역수지 SA (€90억, €109억, €103억)	美> 2월 주택착공건수 MoM (91.7만, 91.5만, 91.0만) 2월 건축 허가 MoM (4.6%, 2.3%, -0.6%) 中> 2월 실질 FDI YoY (6.3%, -4.8%, -7.3%) 日> BOJ 총재 임기 만료 2월 백화점 매출 YoY (0.3%, n/a, 0.2%)	美> 주간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7.1%, n/a, -4.7%) FOMC 금리 결정 (0.25%, 0.25%, 0.25%) 유럽> 3월 유로권 소비자대지수 (-23.5, -23.2, -23.6)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33.6만, 34.0만, 33.2만) 1월 주택가격지수 MoM (0.6%, 0.7%, 0.5%) 3월 필라델피아 연준 지수 (2.0, -3.0, -12.5) 2월 기존주택매매 MoM (0.8%, 1.6%, 0.8%) 2월 경기선행지수 (0.5%, 0.4%, 0.5%) 유럽> 3월 유로권 PMI 제조업 (46.6, 48.2, 47.9) 3월 유로권 PMI 비제조업 (46.5, 48.2, 47.9) 中> 3월 HSBC 플래시 PMI 제조업 (51.7, 50.8, 50.4)	
25	26	27	28	29
	韓> 4분기 GDP YoY (1.5%, n/a, 1.5%) 4분기 GDP QoQ (0.3%, n/a, 0.4%) 美> 2월 내구재 주문 MoM (n/a, 3.9%, 4.9%) 1월 S&P/CS 주택가격지수 (n/a, 146.17, 145.95) 3월 소비자대지수 (n/a, 67.5, 69.6) 2월 신규주택매매 MoM (n/a, -3.9%, 15.6%)	韓> 3월 소비자대지수 (n/a, n/a, 102) 美> 주간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n/a, n/a, -7.1%) 2월 미경주주택매매 MoM (n/a, 0.7%, 4.5%)	韓> 2월 경상수지 (n/a, n/a, \$225.4억)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34.0만, 33.6만) 中> 2월 선행지수 (미확정) (n/a, n/a, 100.50)	韓> 4월 BSI 제조업 (n/a, n/a, 76) 4월 BSI 비제조업 (n/a, n/a, 69) 2월 산업생산 MoM (n/a, 0.3%, -1.5%) 2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n/a, n/a, -0.2) 美> 2월 개인소득 MoM (n/a, 0.8%, -3.6%) 2월 개인소비지수 MoM (n/a, 0.6%, 0.2%) 日> 2월 실업률 (n/a, 4.2%, 4.2%) 2월 소비자 물가지수 YoY (n/a, -0.7%, -0.3%) 2월 산업생산 MoM (잠정치) (n/a, 2.5%, 0.3%) 2월 자동차 생산 YoY (n/a, n/a, -9.9%)
4/1	2	3	4	5
韓> 3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3월 무역수지 3월 HSBC 제조업 PMI 美> 2월 건설지출 MoM 中> 3월 HSBC PMI 제조업 日> 1분기 단칸 대형 제조업 지수	韓> 3월 외환보유액(잠정치) 美> 3월 ISM 뉴욕 3월 제조업수주 4월 IBD/TIPP 경기낙관지수 유럽> 2월 유로권 실업률 日> 3월 자동차판매 YoY	美> 3월 국내 자동차판매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ADB 취업자변동 3월 ISM 비제조업지수 中> 3월 HSBC PMI 비제조업 실적발표> 美 몬산토	美> 4월 RBC 소비자전망지수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실업보험연속수급신청자수 유럽> 2월 유로권 PPI YoY ECB 금리 공시 日> 일본은행 정책금리	美> 3월 비농업부분고용자수 변동 3월 민간부문 고용자수 변동 3월 실업률 2월 소비자신용지수 유럽> 2월 유로권 소매판매 YoY 日> 2월 동행지수 CI 2월 선행지수 CI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

